

# 빨대처럼 꺾인 화순 풍력발전기 연내 철거... 원인은 미궁

## 설비 제조업체, 산림청에 별목 인허가 신청 예정

올해 4월 전남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서 꺾임 사고가 난 4.7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가 6개월 만에 철거된다.

26일 금성산풍력발전 등에 따르면 사고 풍력발전기(높이 127m) 설비 제조업체 독일 지멘스가메사는 산림청에 발전기 철거를 위한 별목 인허가 신청서를 다음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화순군, 지역민 등에게도 철거 작업 실시 계획을 알렸다.

제조사는 산림청 허가를 받은 이후 철거에 필요한 장비 조립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철거 공사 착공까지는 2~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꺾인 발전기까지 철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변 벌목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블레이드와 로터, 지지대 등을 분해한 후 발전기 절단 작업에 들어간다. 절단된 풍력발전기는 고철로 처리한다.

철거 이후 훼손된 산림도 제조사가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 철거 완료 시점은 오는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거된 풍력 발전기에는 새로운 발전기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풍력발전기가 쓰러진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설계·시공 결함 의혹 등 다양한 추론이 나왔지만, 설비 제조업체인 지멘스가메사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산풍력발전 관계자는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난 4월21일 오전 2시50분께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넘어졌다. 넘어진 풍력발전기는 지지대 하단부로부터 약 30m 높이 위치가 빨대처럼 꺾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풍력발전기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불안이 커졌다.

/뉴스시스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화산산 정상부에 지어진 127m길이의 4.7MW급 풍력발전기가 꺾여있다. 지난 21일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서 세워진 풍력발전기 11기 중 11번째 발전기가 쓰러진 것과 관련해 사고의 시공·제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광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조성 논의 미흡 논란

###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 부지 터 조성 예정 역사관 사업주 "개발 구상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뒤집혀" 시 "방직 기계 전시·노동자 역사 반영 등 의견수렴"

조성 부지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공표된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터 내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역사관)에 대해 광주시가 뒤늦게 부지 선정 재논의 과정을 밟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시청에서 개발 사업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역사관 조성 부지 관련 실무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터에 조성될 '역사문화공원' 내 역사관 부지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시는 지난 8월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관 조성을 공식화하고 부지를 발표했다. 전남·일신방직의 전신이었다던 종연방직 전남공장의 제2보일러실에 역사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에는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터에 조성될 문화공원의 밑그림이 담긴 지명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 종연방직 전남공장 제2보일러실 일대를 역사문화공원2로 지정해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역사문화공원2는 광주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후 광복절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역사관이 들어서기로 발표되자 당초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의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발 사업주는 역사문화공원2 조성과 관련해 시와 합동으로 TF를 꾸려 수차례 논의, 공간에 담을 콘텐츠를 자체 구상해왔다.

사업주는 사전협상을 통해 역사문

화공원2에 별도 구상 중이던 건축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복절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역사관이 들어서기로 발표되자 당초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의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도 내부 소통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간 사업을 전담해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갑작스럽게 역사관 조성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견 수렴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사업을 전담해온 부서와 타 부서, 개발 사업주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공원2에 대해 일부는 광주 근대 산업과 과정 속 방직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방직 기계를 전시하고 산업 시설 공간이었던 것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반면 옛 전남·일신방직 공장터 일대를 역사문화공원2로 지정해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역사문화공원2는 광주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서 "이번 실무 회의는 이 같은 의견들을 한데 모아 서로 공유하는 차원이다. 각기 부서와 단체들을 만나 입장을 들었던 적은 있지만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부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권철 기자

## '여름 재난' 보상 농가, 가을 '농업재해' 지원 제외... 농민들 성토

### 특별재난지역 농가, 가을 '벼 깨씨무늬병' 피해 신청 제외 재난이든 재해든 정부 지원은 작기당 1회 지원이 원칙 농민들 "자연재난, 농업재해 명확히 구분된다" 성토

전국의 황금빛 들녘에서 가을 벼 수확이 한창이지만 올해 유독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 때문에 풍년을 맞았으나 농촌 현장 분위기가 침울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피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가장 큰 반발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일부 보상을 받은 농가들은 가을 들어 깨씨무늬병 창궐로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6일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과 농업단체들에 따르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여름철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농약대 등 복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가을철 벼 병해 피해에 대해선 농업재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주 반남면에서 40년 넘게 벼농사를

지은 A씨는 "지난 7월에 논이 침수돼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벼 포기마다 깨씨무늬병이 번져 수확을 포기할 지경"이라며 "이건 명백히 다른 피해인데도 행정에서는 신청조차 안 된다며 막아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벼 깨씨무늬병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고온성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가을철 병해로 벼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병해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반남면 일대에서는 9월부터 병 증상이 확산하며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정 당국에서는 여름에 재난 복구비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같은 작물에 대해선 추가로 농업재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 농약대 등의 지원은 연간 한 작기(한 해 작물을 심고 거두는 시기)당 1회 지원이 원칙이라는 지침에서다.

이 때문에 벼 병해 피해 농가들이 '피해 조사 확인서' 접수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

하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신청서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식품부는 자연재난과 병해충 등 농업재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생 원인과 시기가 다르면 별도의 피해로 인정해 각각 보상하는 체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농경지 침수나 태풍 피해와 가을철 병해는 원인도 시기도 명백히 다른 만큼 독립적인 재해로 보고 각각 지원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 수확량 감소 피해 증빙 자료를 오는 31일까지 쫓기듯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확량 감소 증빙은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등 피해 농지의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는 피해 조사 결정 전에 이미 수확을 마쳤거나 병해가 발생한 논이 벼가 정장 벼와 뒤섞이는 바람에 피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각 농가에서 90% 이상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이 11월 중순께 최종 확정하는 피해를 산정 조사 자료를 농식품부가 활용하길 바라고 있다.

고령의 농업인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가을 수확기 일손 부족으로 가뭄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까다로운 피해를 산정 증빙 자료까지 직접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피해 신청 접수를 포기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여름 폭우 피해와 가을 병해 피해는 발생 원인과 시기가 명백히 다른데도 한 작기당 1회 지원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조치이고, 피해 증빙 절차도 고령 농업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잡하다"며 "정부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조사자료 등 공식력 있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가을 농업재해로 인정할 '벼 깨씨무늬병'은 피해율에 따라 농가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병해 발생 면적이 전체의 30% 이상 80% 미만은 '농약대'를 ha당 82만원 지원하며, 피해율 80% 이상이면 '대파대'(다시 심기 지원금)를 ha당 372만원 지급한다.

벼 깨씨무늬병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농가가 선택한 품종·시비·방제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2024년 벼벌구, 2021년 이삭도열병 사례를 감안해 30% 이상 피해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뉴스시스

## "구청직원인데요" 물품대납 사기주의... 광주 공무원 사칭

광주에서 최근 공무원 사칭과 허위 명함을 활용한 물품 대납 요구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구청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가 지역 A업체에게 휴연 측정기 납품을 빌미로 특정 업체의 물건 구매를 요구했다.

구청 직원 명함을 제시한 한 사칭범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휴연 측정기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선구매해 구청에 납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당 160만원에 달하는 휴연측정기 15개를 구매해달라는 요구였다.

A업체는 공공기관에서 대납을 요구하는 것에 이상한 김새를 느껴 구청에 확인, 다행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동·서·북·광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행구매를 요구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특정 업체에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기관에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